

## “아이티 재건 위해 세계복음연맹 결성할 것”

사방을 둘러보면 무너진 집들이 즐비하고 폭격을 맞은 듯 성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지진의 여파로 정신 공황에 빠져있었고 집들을 새로 짓고 재난민들이 회복 되는데 까지 수년을 걸릴 것 입니다”(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박용덕 목사)

남가주 한인교계 지도자들이 23일 오전 11시 남가주기독교교

박용덕 목사는 “대통령궁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집까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다 무너져 있고, 무너진 집에서 구출된 사람은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곧 닥쳐올 우기가 걱정이 됐다. 또 쓰레기는 곳곳에 있었고 꼭 1950년대 가난했던 한국을 보

3백여 교인 가정에 성공적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들과 현지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 전략 회의도 했다”고 전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지용덕 목사는 “재난 현장을 방문해 보니 무너진 현지 교회의 복구뿐만 아니라 지진 여파로 정신 공황을 겪는 이들과 일터를 잃은 재난민들에 대한 정신 교육도 필요하



▲남가주교계 지도자 아이티 방문 선교 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 남가주교회 협회 지용덕 목사, 오렌지카운티교회 협회 회장 박용덕 목사, 기독교사회책임 박종대 목사 ©이태근 기자

### 남가주 한인 교계 지도자, 아이티 방문 선교 보고

회의의 사무실에서 아이티 방문 선교 보고 시간을 가졌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남가주한인목사회,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관계자 4명은 구호품 전달과 재난 참상 파악, 아이티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 파악 차원에서 15일부터 19일까지 아이티를 방문했다.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

는 듯 했다”며 방문한 재난 현장의 상황을 생생히 전했다.

이날 아이티 현장을 방문한 교계 지도자들은 생생한 현장 상황뿐만 아니라 구호품 전달과 아이티에서 펼칠 선교 전략에 대해서도 전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 박효우 목사는 “미군 공수 82사단 후위 아래 준비해간 1천여 구호품을 7백여 일반 가정과

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지인 지도자들과 현지 교계 대표, 한국 교계 대표, 미주 교계 대표들과 함께 아이티 재건을 돕는 세계복음연맹을 결성해 아이티 재건을 도울 것”이라며 “영적 대각성이 필요한 아이티를 위해 선교집회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의료봉사 사역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 목사는 “현지에서 1백만 명이 모인 집회를 개최한 현지 기독교 영적 지도자 레네 목사를 초청해 현지 상황을 듣는 보고 시간

간을 계획하고 있다. 또 우기를 나기 위해 필요한 텐트를 많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선교 보고 시간에는

미주장신대와 동양선교교회, 일반인침례교회에서 아이티 재난민을 위한 구호품 전달식도 가졌다.

(이태근 기자)

### 청빙

동양선교교회에 새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최근 동양선교교회측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고를 내고 희망자는 자기 소개서와 이력서 그리고 최근 설교 CD나 테이프를 동양선교교회 청빙위원회로 제출할 것을 알렸다.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직은 강준민 목사 사임 후 4개월 가량 공석이었다.

(이태근 기자)

## 무슬림 ‘낙타 전도법’ 놓고 미 선교계 효용성 논쟁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낙타 전도법(Camel Method)’에 대한 반론이 미국 신학계에서 일부 제기된 가운데, 한 선교 전략가가 낙타 전도법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필리핀에서 10년간 무슬림 선교를 펼쳐 온 선교사이자, 전방 개척선교 전략가인 데이빗 베일러(가명)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낙타 전도법이 “전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미션 데이터베이스(Global Mission Database)」

“속임수 기반한 사업에 불과” vs “복음으로 인도하는 다리”

의 편집인이자 「10/40 창 작전(Operation 10/40 Window)」의

저자이기도 한 그는 낙타 전도법에 대해, 선교사들이 무슬림들에게 접근하며 받게 되는 오해를 줄여 주고, 복음을 전했을 때 돌아오는 과격한 반응을 피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낙타 전도법은 미국 남침례교(SBC) 해외선교국(IMB) 연구원 케빈 그레슨이 개발한 무슬림 선교 전략으로, 코란 내용을 갖고 대화하면서 무슬림들이 진리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들을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다.

자신이 무슬림이었고, 기독교로 개종한 후 무슬림 선교에 힘써 온 그레슨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무슬림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바에 정면 도전하기보다는, 더 정중한 방식으로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낙타 전도법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낙타 전도법은 현재까지 무슬

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리버티 신학교 학장인 어건 케너 박사는 “성경의 하나님과 코란의 알라를 전혀 공통점이 없다”며 낙타 전도법은 “전적인 속임수”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역시 무슬림 출신이기도 한 그는 “속임수에 기반한 복음 전도의 ‘사업’을 시작할 수는 없다”며 “전도법이라고 하지만 거짓말일 뿐”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2면에 계속 ▶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 새로운 도약, 이문규 법률 그룹

2009 사업부문 재편, 분야별 전문성 강화, 고객만족 극대화

**이민**

- 미국 취업이민, 취업비자, 투자이민, 투자비자, 종교이민, 종교비자, 가족이민 전문
- 거절 케이스, 재심승소사례
- 철저한 분석, 정확한 판단력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로펌
- LA 본사와 SEOUL, IRVINE 지점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

**상법/소송**

- 20년 이상 소송 및 파산 신청에 풍부한 경력
- <소송> 계약 분쟁 수급, 저작권 또는 특허권 침해
- <파산> 개인파산, 기업회생, 신용문제 상담
- <상해> 최대 보상금, 치료병원 연계
- <용자> 용자조정, 용자소송, 차압
- <부동산> 리스 양도, 리스 분쟁 및 협상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대표전화 213.380.2828

**LA OFFICE** (213) 380-2828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IRVINE OFFICE** (949) 442-8370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SEOUL OFFICE** (822) 510-520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1 J타워 6층

[www.leekent.com](http://www.leekent.com)  
E-mail : info@leekent.com

# 미국도 박해국? 기독교인 상대 혐오범죄 위험수위

지난달 플로리다 주에서 일어난 20대 설교자 2명의 총살사건에 대해 왓치도그 그룹(Watchdog Group)이 기독교 대상 혐오범죄 수위가 염려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제리아 우디(18세)라는 청년은 함께 대화하던 설교자 타이트 수프라(24세)씨와 스테판 오션(23세)씨에게 총격을 가해 차례

로 숨지게 했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이렇다. 설교자인 수프라 씨와 오션 씨가 거리청년인 우디에게 복음을 전하던 중 우디의 전화벨

다. 이를 본 오션 씨는 황급히 달아났으나 뒤에서 쏜 총알이 등을 관통해 쓰러졌고, 우디는 앞으로 와서 그의 머리에 정면으로 총격

량을 선고받았다. 기독교단체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지역 관할 매니저인 조나단 라초 씨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

인도, 나이지리아, 중국, 북한 같은 박해가 심한 나라에서나 들어오던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몇몇 기독교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나도록 언론을 통한 보도가 거의 나가지 않은 사실에 분개했다.

기독교신문 '순교자의 소리'대변인 토드 네슬턴 씨는 "만약 이 사

건이 코란경전과 모하메드를 거리에서 전하던 2명의 무슬림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면, 엄청난 시위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기독교인으로써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언론의 관심이 극히 적은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디는 아직 자세한 범행동기를 진술하지 않은 상태다.

<권나라 기자>

## 지난달 플로리다주 설교자 2명 총격사건, 언론 보도 잠잠

이 울렸고 멀리 전화를 받으러 가는 척 하던 그가 갑자기 몸을 돌려 수프라 씨의 머리를 정면으로 쏘

을 가해 살해했다. 총 3명의 설교자 중 한 명은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디는 1급 살인형

죄가 미국 내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며 "이것은 염려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

### 1면에 이어 ▶

그러나 선교 전략가인 테일러는 낙타 전도법이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진리의 조각들을 복음으로 가는 다리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타 전도법은 모든 위대한 무슬림들이 99개의 알라의 이름을 아는 데, 100번째 이름은 낙타만이 안다는 이슬람 전설에 착안한 것이다. 낙타 전도법 사용자는 100번째 이름이 '예수', 또는 코란에 나오는 '이사(Isa)'라고 무슬림들에게 설명하고, 코란 구절을 인용해 이사가 기록하며, 죽음을 정복하는 권세를 가졌으며,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어 무슬림들의 희생제인 이드 알 아드하(Eid al-Adha) 개념을 이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인

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깨우치게 한다. 테일러는 "필리핀에서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이 방법을 쓴 선교사들이 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했고, 그 열매들은 주님의 헌신된 제자들로 자라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반면, 코란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로 접근을 시작한 이들은 지금도 결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장의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슬림과 대화할 때 성령이 역사해 이들이 진리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만, 낙타 전도법의 유용성 만큼은 무슬림 선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현정 기자>

## 1년 전 기독교계의 오바마 지지, 지금은 어디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기독교 지지가 취임 1년만에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선거 운동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독교인 국

근 미국 기독교 리서치 전문기관 바나 그룹의 조사 결과에 의해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인내를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조사 보고서는 분석했다. '거듭난 기독교인' 중에서도

바마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다루기를 희망하는 사안은 경제 회복이었으며, 대통령 직무 수행을 평가하라는 질문에는 많은 응답자들이 가장 잘한 분야는 환경과 대테러리즘, 가장 잘하지 못한 분야는 세금 정책, 중동 평화, 정치 채신, 그리고 건강보험법 개



▲ 오바마 美 대통령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1,005명의 미국 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손현정 기자>

### 7% 가량 이탈... 세금정책·친동성애 등에 불만

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 2009년 취임 당시 자신을 '거듭난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미국인 중 42%가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러나 취임 1년 만인 현재에는 35%만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여전히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최

자신을 동시에 '복음주의자'로 밝힌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에 대해 더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중 단지 18%만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나타냈다. 한편,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오

해 등을 꼽았다. 특히 복음주의 교인들은 연방 정부의 낙태 시술소 재정 지원 방안을 포함한 건보법 개혁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동성결혼 합법화 추진 등 오바마 정부의 친동성애 성향에도 비판적이었다.

## 9.11 테러, 미국이 용서를 선포했다면...

### 최바울 선교사, '하나님의 방식' 강조

23일 애틀랜타 실로암교회(담임 신윤일 목사)에서 진행된 이슬람선교세미나 인터뷰 대표 최바울 선교사는 "4천 년 전 이삭과 이스마엘 갈등이 심화돼 기독교와 이슬람의 현 시대 충돌을 낳았다"며

"이 문제는 구약이 아닌 신약의 방식, 복음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선교사는 9.11테러를 예로 들면서 "사건 당시 미국은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전 세계가 미국을 주

목한 상황에서 용서를 선포했다면, 반미세력은 힘을 잃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십자군 전쟁 이후로 이슬람이 받았던 역사적 상처, 그들 안에 있는 분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 선교사는 '하나님의 방식'을 주장했다.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말이다. 이러한 복음의 방식 때문에 인터뷰에서 진행하는 백투에루살렘 운동은 유대인 보다는 이슬람을 섬기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선교리더십의 흐름에 대해 설명한 최 선교사는 "9.11 테러 이전까지는 서방세계가 선교를 주도해왔지만 9.11테러 이후 한국으로

선교리더십이 넘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이 세계선교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 1백만 선교사 파송 비전을 소개했다. 그는 또 한국의 선교리더십이 중국으로 급속하게 넘어간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180개국 디아스포라가 퍼져있는 선교적 열망이 강한 한국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그러나 약점이 있다면 민족분

단의 이름이다"며 "세계는 쳐다보지 않고 그저 북한만 쳐다보는 현상이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 실존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북한을 복음화 시키는 선교가 필요하지만, 선교를 위한 글로벌리더십을 약화시키는 이 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나라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국: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조요한  
편집국장: 이재학 광고국장: 이인규  
대표전화: (213) 739-0403 / 팩스번호: (213) 739-0408  
이메일: chdaily@gmail.com  
주소: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 무료 법률 상담 안내

# 주제 : 법률 강연 및 상담

- 장소: 미주 성산교회
- 일시: 3월 21일(주일) 오후 2시 30분
- 주제: 법률 강연 및 상담
- 대상: 법률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목회자 추천을 받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무료 상담)
- 법률 강연 주제: 취업비자 & 취업이민, 종교비자 & 종교이민
- 개별상담분야: 모든 이민법과 관련된 부분, 소송, 기업법 등

이문규 법률 그룹은 글로벌비전뱅크(대표 이길소 선교사)와 함께 미주성산교회에서 제1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법률 상담을 받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미주 성산교회 213-975-1111, 이문규 법률 그룹 213-380-2828**

# 미주한인총연합회, 상임이사회 개최

미주한인총연합회(총회장 남문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19일부터 3일간에 걸친 상임이사회 회의는 20일 오전 10시부터 한인 타운에 위치한 월셔프라자 호텔에서 장시간에 걸친 본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이사회는 남문기미주

임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또한 '2010년 세계 한인회장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협의하고 참정권에 따른 투표방법과 부표장소 확대방안과 재외동포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사용 허용방안,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위한 지역한인회의 주도적 협력방안,



▲ ©미주한인총연합회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날 미주한인총연합회 남문기 총회장은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변화에 순응하고 발전 지향적인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학은 적게 삶은 많게 하는 생활철학을 토대로 모국이 지향하는 방향에 서서 나의 삶과 이사회가 윤택해 질 수 있는 방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심중을 토로했다.

## 2010년 세계 한인회장 대회, 투표방법 등 논의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을 비롯하여 LA 스칼렛엄 한인회장, 이민회 전총회장, 김재곤 이사장, 박현일 서남부연합회장, 윤재연중 서부연합회장, 광성국 서북미연합회장 등 각 지역 전 현직 한인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공개 토론회의 형식으로 논의된 주요 의제로는 이번 5월 7일에서 9일까지 워싱턴에서 '해외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 총회'를 개최하는데 따른 안건을 상

한글학교 교사육성과 교육자료 협조방안, 공관인사를 현지인으로 해서 최대한 현지인 고용 확대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도 토의하고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통과된 내용은 서류를 작성, 각 해당 공관에 통고 형식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이는 2012년 투표권이 확정에 따른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미주대표단체로서의 거대 조직의 발 빠른 움직임을 추이된다.

이외에 다루어진 의견은 미주지역 총영사관은 한국공휴일 대민 봉사업무를 위해 사무실을 오픈하라는 것이다. 투표를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를 하게 하는 방법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차별적 대우를 글로벌 시대에 맞게 법 개정이나 악법은 철폐해 달라는 건도 있었다.

거소증을 3년에서 10년으로 주장하는 안건도 토의 되었으며 평통인선을 일본의 민단처럼

전, 한인회장들이 인선하고 영사관에서 검토해서 보고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행한다는 안도 있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남문기 총회장이 주관하는 미주 전 지역을 대표하는 한인회 회장단 결의안을 통과 시키는 자리인 만큼 첨예한 질문이 오가는 가운데서도 미주한인총연합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의 단합과 한인사회의 삶과 성장이라는 현실에 밀착된 안건들이 대거 제출

되는 등 170개 지역 한인회를 이끌고 있는 최대 조직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의제에 관련된 주제 발표는 107년 미주 한인 사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재조명하는 단계에서 현대와 변화하는 미래를 고려한 장기지속적인 대표단체로서의 역할과 무엇보다도 현 조직의 존재성과 활동력이 한인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들이 무난히 정치, 경제, 문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펼칠 수

특히 남문기 총회장 자신의 시스템화된 봉사활동, 소통과 정보관리 등을 소개하며 중심적인 활동과 주변성 분할에 대한 체계모니 선도역할에 대한 연설은 현 조직의 내실화와 사회성을 강조한 부분으로 미총련 조직의 변모와 향후 활동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결의안은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장의 지휘 하에 한국국회에 정식적인 건의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지재일 기자>

## 사랑의 손길로 치유 받은 마이클과 그의 가족

"마이클을 위해 특수 제작된 밴을 구입했습니다. 이제는 마이클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위해 교회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늘푸른선교교회)

늘푸른선교교회가 혼수상태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난 마이클을 위해 밴을 구입했다. 교회는 지난해 11월 마이클에게 필요한 특수 제작된 밴 구입을 위해 바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을 선물로 받은 마이클과 그 가족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처를 서서히 회복해 가고 있다. 교회 김 모 권사는 "아들의 사고 후 예배만 드리고 가던 부모님이 아들을 위한 교인들의 사랑에 마음을 서서히 열어가고 있다. 마이클도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입 모양으로 대화를 하려고 한다"며 "사랑의 손길로 인해 상처 받은 이들이 치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됐다"고 전했다.

마이클은 밴을 재활치료를 위한 병원 가기, 가족들과의 나들이 등에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들과 함께 낙산 박물관을 방문했다.

마이클은 2008년 8월 교회에서 집으로 가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었고, 병원 측은 마이클이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99.9%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부모에게 전한 바 있다.

<이태근 기자>

## 발렌타인 시즌, 노숙자들에게 초콜릿 사랑 전해

소중한사람들(대표 김수철 목사)이 13일 오전, 발렌타인 시즌을 맞아 홈리스들에게 사랑의 초콜릿을 전했다.

이날 전달한 사랑의 초콜릿은 미주성서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성우 목사)의 주관 하에 남가주를 찾은 금년도 2차 팀 미주체험학교 청소년들과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랑의 초콜릿 외에도 홈리스를 돕기 위한 봉사 활동에 나섰다.

또한 이날에는 정기적으로



▲미주체험학교 학생들이 홈리스들에게 초콜릿과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소중한사람들

식을 만드는 로스앤젤레스한인교회(담임 박성근 목사) 선교팀 40여명이 불고기 백반을 준비 홈리스들에게 전했다.

김선영 미용실에서 나온 이들은 정기적으로 해주는 머리 손질과 선물을 대신 초콜릿과 빵을 선물로 준비해 전했다. 아웃리치에 나선 학생들은 용돈을 모아 양말꾸러미를 준비하여 예쁜 손가방에 초콜릿 사랑을 담아 선물했다.

<이태근 기자>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GST Language Center**  
갈릴리 신학대학  
유학생을 **장학생**으로 초대  
**가장 빨리 영어배우실분**  
학위전학, 신분변경무로  
**학생소개자특전!**  
목회자 추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550.7377** 24시간

**여성건강선교회**  
Samuel Yu 선교사  
**Tel. 213.999.2696**  
3200 Wilshire Blvd #1750 (south tower)  
10 years feeding 1 million people.

의료 선교는 · 우리 · 모두의 · 일입니다!

# 제3차 한미 의료선교대회

가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를 꿈꾸는 모든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0년 3.26(금)-27(토)**  
**장소: 엘바인 베델한인교회**  
**주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강사: 유수만(D.D.S.), 김정남(Ph.D.), Scott Harrison(M.D.), Elizabeth Styffe(R.N., M.N., P.H.N.)**  
**주최: 미주 기독교 의료선교협의회 (KAMHC)**  
**등록문의: www.kamhc.org kamhc2010@gmail.com 714-444-3032**  
**조기등록 할인 2월 28일까지**

24개의 선택강의 강의 시간 중에 의대/치대 입학설명회도 있습니다.  
강사: 전/현직 의과대학교수 (admission committee members), 개업의, 의대 재학생 및 MedSend 강사 (학비보조프로그램 운영단체)  
대상: 학생 및 학부모

1세대엔 선교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경험들을 나누고 도전받는 기회가 되며,  
2세대엔 미래 의료인이 되기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KAMHC**  
Korean-American Missions Health Council  
Non-profit Organization

## 청소년 마약 남용 해결, 핵심 역할은 '부모'

‘건강한 이민 가정, 건강한 한인 청소년’ 양육을 위한 한인가정상담소는 날로 심각해지는 한인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적절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한인가정상담소의 학부모 워크숍을 2월부터 4월까지 매달 1회 개최하고 있다.

2월 첫 번째 워크숍에서 마약 및 알코올 관련 전문 치료기관 AADAP 백영옥 카운슬러는 ‘한인 청소년들의 마약 및 약물 남용 실태와 증상 및 대처’에 대해 전했다.

마약 사용의 심각성에 대해 백영옥 카운슬러는 지난 2001년~2002년에 비해 2002년~2003년도(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마약 남용 실태가 22%

“불법 마약 사용 여부를 알아내는 방법은 냄새, 신체 변화(눈 충혈, 동공 수축/확대, 정맥 주사를 사용하는 마약은 팔 다리에 자국이 남음), 엑스터시 사용 시 갑작스럽게 감정이 폭발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감정 변화(큰 소리로 떠든다거나 화를 잘 내거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려할 경우)를 통해 자녀들이 마약을 사용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백영옥 카운슬러는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히 관여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열린(솔직한) 대화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어릴 때부터



▲한인가정상담소 크리스틴 김 카운셀링 매니저

기 위해 마약 중독에 노출되고 밝혔다.

대중문화의 약영향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잡지 속의 성적인 이미지, 알

체적 문제치료를 위해 등산, 여행,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자녀를 격려해야 합니다. 부모-청소년 집단 모임이나 치료적 프로그램 모임 참여, 가족치료, 전문가와 상담 및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는 십대들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크리스틴 김 매니저는 무엇보다 자녀들의 약물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부모’들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평소 부모교실, 세미나 참여, 정기적인 상담을 받는 것은 효과적인 자녀양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5분,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15분까지 12주 과정의 부모교실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3월 11일(목) 오후 7시~8시 40분-‘청소년 인터넷 및 게임 중독, 무엇이 문제일까’

4월 25일(목) 오후 7시~8시 40분-‘청소년 문제 이제는 부모가 함께 해결할 때입니다’

장소: 한인가정상담소 대회의실 (3227 W. 6th Street, Suite 320 Los Angeles, CA 90036) 대상: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참가비: 무료 문의) (213) 389-6755

〈지재일 기자〉

## 투산 기독교인들, 25일 북한 인권 집회 개최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로버트 박 선교사의 거주지인 애리조나주 투산의 기독교인들이 오는 25일 북한 정부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에는 로버트 박 선교사가 도왔던 탈북자도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나, 박 선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투산의 기독교인들은 25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북한 인권 선교집회를

개최한다. 로버트 박 선교사로 인해 북한 인권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투산 지역 기독교인들과 애리조나대학 학생들, 인권단체 ‘링크’ 등이 참여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으로 시내 공원 집회, 거리 행진, 애리조나대학 잔디광장 집회, 저녁 기도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탈북자들의 중국 탈출 장면을 생생하게 담은 다큐멘터리 ‘서울 트레인’도 상영된다.

〈지재일 기자〉



▲한 인권단체가 북한 동포의 인권 보장을 하라며 시위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DB

## ‘3·1 만세운동은 민족의 기개를 펼쳤던 의거’

### 남가주한인목사회, 3·1절 기념예배 드리고 목회자 세미나 개최

남가주한인목사회(이정현 목사)가 오는 28일 오후 4시 밴델장 로교회에서 제91주년 3·1절 기념예배를 드린다.

남가주한인목사회측은 “3·1 만세운동은 일제에 의한 국권 강점기에 우리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거국적으로 평화적 항거를 하여 만세 만방에 우리 민족의 기개를 펼쳤던 의거였다”며 “3·1정신을 후세들에게 이어주고 동포사회의 애국 애향심 함양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가지관이 혼돈된 이 시대에 정립해 가고자 기념예배를 드린다”고 밝혔다.

목사회측은 기념예배 외에도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와 남가주 ILP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는 뉴욕 퀸즈 장로교회 담임이자 동부개척장로교회신학교 학장인 장영춘 목사가 나서며 남가주 ILP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는 현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인 이정현 목사와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정재훈 장로, 빛과소금교회 정명성 장로가 나선다.

목회자 세미나는 3월 2일 오전 10시, 3월 오후 2시 나성서부교회에서 열린다.

〈이태근 기자〉



▲3·1절 기념예배에 참석한 이들이 묵도하고 있다. ©이태근 기자

## 나눔선교회, 청소년 교육 위해 거리청소 실시



▲한영호 목사(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와 나눔선교회 청소년들. ©나눔선교회

나눔선교회(한영호 목사) 청소년들이 깨끗한 타운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청소년들은 오는 27일 오전 11

시 선교회를 중심으로 거리 청소 에 나서며, 나눔선교회 측은 선 교회에서 돌봄을 받는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됐다

고 밝혔다.

한영호 목사는 “선교회 청소년들은 사회와 부모님에게 빛이 되기 위해 한 달에 한번 양로원을 방문키로 했다. 〈이태근 기자〉

로 자신이 썼을지도 모르는 벽의 낙서를 지우고 자신이 버렸을지 모르는 담배꽂이를 치우면서 자신을 돌아켜 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또 한 목사는 “청소를 통해 자신들도 이웃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교육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선교회 측은 거리 청소 외에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한 달에 한번 양로원을 방문키로 했다. 〈이태근 기자〉

## 월드비전 직원 채용 공고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에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 동란의 고아와 미망인을 도우면서 태어나 현재는 전 세계 1백 여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돕고 있는 월드비전. 월드비전US 코리아 데스크에서 서부 지역 디렉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부서 : 코리아데스크 서부지역 디렉터
- 모집인원 : 1명
- 모집기간 : 2010년 2월 30일까지 서류접수
- 필수자격조건 :
  1. 신실한 크리스천
  2.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
  3. 미국내 취업에 걸려사유가 없는 자
  4. 영어, 한국어, 미중언어 구사자

- 우대사항: 1. 기독교 NGO 및 연합회 활동 유경험자  
2. NGO 마케팅 실무 경험자
- 업무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1. 조직관리 및 각종 행사의 기획/운영 능력
  2. 기본적인 컴퓨터 수행능력 (한/영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온라인 시스템 포함)
  3.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능력
  4.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감, 성실성
  5. 타주 출장 가능한 자

### 채용절차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한/영 각 1통)  
(관련업무 수행 경험에 대한 내용 포함)
2. 담임 목사님 추천서
- \* 제출된 서류는 다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1. 1차 서류접수 jikim@worldvision.org
2.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별 통지, 월드비전US 웹사이트 (worldvision.org) 온라인 접수
3. 개별 면접



##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3월 1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usa.com / ice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 다시 만난 한기총-NCCK 대표들 “8.15도 함께”

얼마 전 NCCK 권오성 총무가 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을 방문해 한국교회 현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광선 대표회장이 NCCK를 방문했다. 특히 이

60주년 및 4.19 5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라며 "한국교회, 특히 한기총과 NCCK가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권

철인 8월 15일(주일) 오후에 적절한 장소를 택해 성회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이 일에 NCCK가 함께하여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전체의 성회가 되도록 절차를 밟

하다"고 답하고 "제안해 주신 내용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광선 목사는 "8.15 대성회에 북한교회 대표 초청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올해 양 기구가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권총무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3일 권오성 총무의 한기총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방문은 한기총 총무 김운태 목사가 배석했다.



▲ 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과 김운태 총무가 NCCK 권오성 총무가 한담을 나누고 있다.

## 이광선 대표회장과 김운태 총무, 권오성 총무 방문해 환담

대표회장은 '8.15 기념대성회'에 대한 협력과 동참을 요청했다. 2월 22일(월) 오후 NCCK 사무실을 방문한 이광선 대표회장은 "올해는 경술국치 100주년과 6.25

오성 총무는 "부활절연합예배와 같이 한국교회가 하나된 모습을 사회에 드러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광선 목사는 "한기총이 광복

아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권오성 총무는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간 화해자로서 신뢰받는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며 "이제 힘을 모으는 것도 필요

이들은 지난 2월 3일 만남에서

는 아이티 지진 구호를 위한 '한국교회협의회' 총회와 2014년 국교회 라운드 테이블 회의'와 올 WEA(세계복음연맹) 총회 등에 부활절 연합예배, 2013년 WCC(세계교회협의회) 총회와 2014년 WEA(세계복음연맹) 총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재광 기자>

# 북한, 이란, 모리타니아 등 기독교인 박해 심화



▲ 왼쪽부터 2010 세계기독교박해지수 1위국인 북한의 어린이, 2위국인 이란의 여성, 9위국인 라오스의 소녀.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작년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가 악화된 국가는 북한, 이란, 소말리아, 예멘, 모리타니아, 베트남 등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세계 기독교 박해상황을 조사하여 세계기독교박해지수(The Open Doors World Watch List)를 발표해 온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최근 뉴나미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4만여명의 지하교인이 수감 중인 북한과 기독교인의 체포, 고문이 빈번하게 발생한 이란, 예멘, 모리타니아 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2010 세계기독교박해지수에 따르면 북한은 8년 연속 박해지수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이란(2위), 사우디아라비아(3위), 소말리아(4위), 몰디브(5위), 아프가니스탄(6위), 예멘(7위), 모리타니아(8위), 라오스(9위), 우즈베키스탄(10위)이 그 뒤를 이었다. 박해지수 상위 10개국 중 북한(공산주의), 라오스(불교)를 제외한 8개국이 이슬람

을 국교(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예멘, 모리타니아)로 정하거나 인구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지역(우즈베키스탄)이다.

선교회에 따르면 북한(기독교인 40만명, 총인구 2390만명)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의 뿌리가 남아 있으며 신앙이 3~4대에 걸쳐 전수되어 지하교인이 40만명에 달한다. 선교회 대표이자 국제오픈도어 북한사역 총책

에 비밀리에 체포된 뒤 살해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져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생체실험에 동원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정부가 기독교인을 억압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확산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최근에는 화폐개혁, 장마당 폐쇄 등 모든 수단 동원하여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탈북자, 기독교인 색출에 나서고 있어 지하교인들에게 문서, 식

란(기독교인 25만명, 총인구 742만명)은 작년 최소 85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됐으며 3위인 사우디아라비아(기독교인 55만명, 총인구 2570만명)는 기독교인의 종교 자유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기독교인 체포 사건은 단 한 건만 보고되었다. 소말리아(기독교인 5천명, 총인구 910만명)는 작년 4월 이슬람법이 실정법으로 채택된 이후 기독교인들이 정부와 이슬람 민병대의 감시를 받으며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예멘(기독교인 1만1천명, 총인구 2360만명)은 작년 6월 이슬람 과격단체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기독교인 의료사역자 3명이 납치, 살해되고 구호사역자 6명이 행방불명 되어 박해지수가 높아졌다.

선교회에 의하면 모리타니아(기독교인 4천명, 총인구 330만명)는 작년 6월 기독교인 구호사역자 1명이 순교하고 8월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35명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다.

또 작년 9월에는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150명이 체포되어 박해지수 순위가 18위에서 8위로 올랐다. 베트남은 정부가 급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재작년 23위에서 21위로 상승했다. 선교회는 "베트남에서 교회에 관한 법적 조건은 개선되었으나 몰수된 교회 재산을 놓고 정부와 기독교인들 간 대규모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희희 기자>

# KWMA, 보다 정확히 집계된 2009년 선교 현황 발표

## 아시아권 선교사 12,485명 최다... 대부분 교회개척 사역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소속 선교단체들의 협조로 2009년 선교사 파송현황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제20차 정기총회에 서 발표한 선교사 파송현황보다 더 정확하게 집계한 통계 내용을 발표했다. KWMA는 "2009년 12월 말로 20,445명(이중소속포함 21,735명)으로 발표했지만, 2010년 1월 30일까지 집계해 본 결과 169개국 20,840명(이중소속포함 22,130명)이 파송됐다"고 확인했다.

2009년 권역별 선교사 파송 현황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은 12,48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이어 아메리카(3,167명), 유럽(2,068명), 아프리카/중동(2,055명), 기타(본부, 수습, 안식, 순회선교사 등 1,595명), 오세아니아(760

명) 순이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곳은 아프리카/중동(58개국)이었다. 2009년 10대 파송국가 중 1위는 AX국(동북아시아)으로 163개의 단체가 3,68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어 북미(1,718명), 일본(1,378명), 필리핀(1,285명), 인도(728명), 태국(622명), 러시아(612명), 인도네시아(597명), 독일(526명), 터키(482명) 순이었다.

한편 2009년(2009년 1월)도 선교사의 사역 영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교회개척이 6,589명(5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제자훈련(14.9%), 교육사역(11.5%), 복지개발선교(5.6%) 순이었다.

<기사제공=선교신문>

# 한국교회 아이티 구호기금, 약 160억원 추산

지난 1월 12일 중남미의 아이티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인하여 국제 사회는 아이티 돕기에 힘을 합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교회도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아이티의 재난을 돕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금 활동과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각 교단과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NGO단체를 통해 모금된 성금이 약 160억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北 지하교인 40만명 중 4만명이 수감”

임자인 김성태 교수는 이날 "북한의 지하교인 중 심분의 일인 4만여명은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작년 한해 동안 적어도 지하교인 20명이 처형되고 1천여 명이 행방불명 되었다"고 밝혔다.

량, 의약품, 구호물품 등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 정부의 박해수위가 높아져도 기독교인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앙도 점점 더 단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해지수 2위를 차지한 이

### 긴급요청

## 가난의 땅에 불잡혀 있던 그들에게 몰아 닦친 또 다른 재앙!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해 줍시다.

World Vision® Building a better world for children

# 아이티(Haiti)

## 지금 전화 주십시오. 1-866-육이오-1950

# 지진 긴급구호

### 사망자 10만 명 넘을 것으로 추정 3백만 명(전국민의 1/3) 지진 피해 입어



#### 5. 초기 구호 지금으로 구입될 물품

- ▶ 임시 텐트 ▶ 담요 ▶ 식수통 ▶ 식기 용품
- ▶ 5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위생 키트

### 1월 12일 강도 7.0의 강력한 지진 카리브 해 아이티(Haiti) 강타 / 10만 명 사망 추정. 전인구의 1/3인 3백만 명 지진 피해 입어 그들에게 사랑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 아이티는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 ◇ 인구 890만명 중 80%가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나라.
- ◇ '진흙 쿠키' 로 끼니를 연명하고, 높은 AIDS 감염과 주기적인 허리케인 피해를 입는 곳.
- ◆ 전국민의 90%가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 월드비전은 아이티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는 구호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주기적으로 허리케인 피해를 입고 있는 아이티에 구호 물자를 비축해 두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직후, 월드비전 직원들은 비축해 둔 구호 물자를 병원 환자들에게 전달했으며, 초기 타겟으로 1만 가정에 구호 물자와 응급 의약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텐트에 있는 재난 물자 센터에서 18톤의 구호 물자를 항공편에 실어, 15일 오전 아이티 공항으로 공수하여 대규모 구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아이티에서 50년이 넘는 구호 사역 경험과 이미 갖추어진 구호 활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지진 희생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월드비전 아이티사역

- ▶ 1959년 부터 아이티 고아 돌기 시작
- ▶ 1978 월드비전 아이티 사무소 정식 개설
- ▶ 아이티 전역의 20개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30만 명 아동에게 수혜
- ▶ 52,000명의 아동들, 월드비전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 받음.

### 어떻게 생존자들을 도울수 있나?

◎ 크레딧 카드를 통한 후원 1-866-육이오-195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체크 보내는 곳: TO: World Vision Korea Desk P.O. Box 9716 Federal Way, WA 98063  
▶ 체크 쓰는 방법: Pay to the order : World Vision  
Memo (For) : Haiti Earthquake



### 전국 노회장 · 서기 · 회계 연석회의서 결의

# 개혁측, 박윤식 목사 보고서 15인대책위 구성키로



▲ 이날 회의에는 전국에서 교단 관계자들이 참여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류재광 기자

예장 개혁(총회장 김병호 목사) 인준신학교인 개신대학원대학교(총장 손석태)가 오랫동안 한국교회 내에서 이단 시비를 겪었던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에 대해 “현재는 이단성이 없다”는 검증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교단 관계자들이 3시간여에 걸친 치열한 논쟁 끝에 15인대책위를 구성해 정기총회에 보고토록 했다.

예장 개혁측은 23일 대전시 소재 신탄우리교회(담임 장세일 목사)에서 제94-2차 전국 노회

장·서기·회계 연석회의를 갖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대책 위에는 찬반 양측을 균형있게 포함하기로 했으며, 구성은 임원회에 일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회’가 아닌 ‘연석회의’에서 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할 수 있는지 법적 논란도 일 전망이다.

개신대측 “과거에 잘못 있었으나 현재는 복음적”

반대측 “왜 굳이 나서서 교단·교회에 피해 주나”

1부 예배 후 시작된 연석회의에서는 교단 신학위원회 위원장

이기도 한 손석태 총장이 기독교 신학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기독교 이단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비추어 박윤식 목사의 신학사상을 검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살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정신”이라고 강조한 손 총장은 절차상 교단과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박윤식 목사와 그가 속한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같은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신대 기독교신학검증위원회 위

원장인 나용화 교수는 개신대의 이번 발표가 한기총과 여타 교단들의 연구 결과를 무시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무작정 덮어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에는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나 현재의 평강제일교회는 철저히 개혁신학을 가르치려 애쓰고 있다는 점을 수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몇몇 목회자들이 거세게 반대 발언을 하고 나섰다. 반대 발언의 주된 이유는 교단 안팎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교단과의 논의 없이 개신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 등이었다. 박윤식 목사가 이단이 아니라는 검증 결과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발표를 취소하게 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었다.

논란이 팽팽선을 달리자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개신대 교수들도 총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대책위 구성에 동의했다. 이에 의장인 김병호 총회장이 동의와 제청을 받아 대책위 구성 건을 통과시켰다. <류재광 기자>

## “목회자 비전이 분명해야 성도들 이끌 수 있다”

마이클 슬로터(Mike Slaughter) 목사 초청 교회성장 세미나가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과 23일 양일간 용인 성복동 수지영락교회(담임 배성식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수지영락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열렸다. 강사인 마이클 슬로터 목사는 미국 오하이오주 김햄스버그교회(Ginghamsburg)에서 30년간 사역했으며, 부임 당시 50명이던 성도 수를 6천여명으로 성장시켰다. 이는 최근 10년간 미국 10대 도시 중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데이튼시에서 이뤄낸 일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틀간 슬로터 목사는 △셀프 리더십 △삶의 모멘텀 △성경적 선교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며, 필요없는 모임을 줄이라”며 “중요한 것은 목회자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일은 성도들도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부임 초기에 자신의 집에서 진행했던 제자훈련을 젊은 사람들을 모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그는 부임하자마자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했다.

이외에 슬로터 목사가 밝힌 김햄스버그교회 성장 노하우는 지역 사회의 필요를 파악해 채워주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고, 효과적인 미디어 사용으로 성도와 비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며,

### 부임 당시 50명 교인 6천여명으로 성장시킨 슬로터 목사

란 무엇인가 △지역을 벗어나 세계 선교로 △미래에 대한 비전 △전략적인 리더십 △당신의 교회를 다음 단계로 올려놓기 △설교와 미디어의 사용 등 총 8차례 강의에 나섰다.

미래목회 전문가인 슬로터 목사는 특히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믿음은 약속된 그 미래를 적극 추구해 나가는 것”이라며 비전에는 명확성과 간결성, 중요성과 그 크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슬로터 목사는 “목회자들의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비전을 가질 수 없다”며 한 예로 사명선언문을 들었다. 그는 “목회자들이 각자 사명선언문은 잘 쓰지만, 정작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전략이 모호하다”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1969년까지 달로 우주인을 보내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천명해 결국 인류가 달에 발자국을 남기게 된 일화를 들었다.

슬로터 목사는 “행정적인 일에

구제사업에 소외된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총 60여억원을 투자하는 열정적인 선교 등이다. 특히 지난 1998년부터 활발히 진행돼 온 웹 사역으로 현재 교회 웹사이트(www.ginghamsburg.org)에는 매달 5만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으로 김햄스버그교회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The Church Report magazine에 미국 50대 교회로 선정됐으며, 2007년에는 같은 잡지에 의해 슬로터 목사가 미국 내 가장 영향력있는 기독교인으로 선정됐다.

배성식 목사는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는 목사님들을 위해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한국교회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개척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온 강사를 모셨기에 일선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용 기자>



▲ 청바지를 입고 강의하고 있는 마이클 슬로터 목사(오른쪽). ©이대용 기자

## “WCC는 결코 자유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 NCCK, 이달부터 4월까지 세 차례 WCC 대토론

한국에서 2013년 개최되는 WCC 총회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권오성 목사)가 WCC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2월부터 4월까지 총 세 번에 걸쳐서다. 총무 권오성 목사는 “WCC를 두고 이렇게 공개적인 토론회를 열기는 처음”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WCC에 대해 보다 분명히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첫 토론이 19일 오후 4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소예배실에서 ‘WCC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제목으로 열렸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이형기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WCC가 태동하게 된 역사를 살피고 그 신학적 정체성을 밝히면서 한국교회, 특히 보수·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WCC에 대한 오해를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WCC가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

하고, 좌경화된 사회참여 일변도로 나가며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 ‘초대형교회’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그는 “WCC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WCC가 자유주의라고 비판하지만, 각종 문서를 통해 드러난 그 신학적 입장은 상당히 복음주의적”이라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한다고 해서 자유주의로 몰아세워선 안 된다. 왜 비판만

하지 답답하다”라고 했다.

이 교수는 그의 여러 오해들을 해명하기 위해 1951년 토론토 WCC 성명에 나타난 ‘교회, 교회들, 그리고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내용의 글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WCC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글에는 WCC가 매우 튼튼한 교회론을 갖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라고 했다.

이 성명서는 WCC가 교회들의 협의체요 연합체로 신약성경이 증언하고 고대 신조가 고백했던 하나의 교회(Una Sancta)를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대용 기자>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http://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리더 양성해 사회 변화 시켜야’

남가주 교계 원로 목회자로 지금까지 활발히 사역하고 있는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목사)가 부흥회 인도를 위해 애틀랜타를 방문, 지난 20일 성령의교회(담임 최찬찬 목사)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대형교회로 성장해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나성영락교회의 리더십을 배우고자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했으며 한 자라도 놓칠까, 메모장을 넘기며 세미나를 경청했다. ‘이민교회의 지도력’을 주제로 강연한 박 목사는 목회자는 먼저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교회가 건강한가? 사회단체가 건강한가?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육체적,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다수가 교회로 몰리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오히려 건강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교회에는 교단과 지역, 성격 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목회자는 이를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



▲ 박희민 목사

하심을 따라 법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더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잘못된 것도 많지만 잘 할 것 중 하나는 지역사회 리더양성을 위해 많은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것이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데는 선교사들이 기독교정신을 가진 학교를 많이 세운데 이유가 있다. 교회를 이런 리더를 양성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새들백 교회에는 500여개의 사역이 있다. 교회는 이들을 차량정비팀으로 세우고 굉장한 사역의 효과를 봤다. 적재적소에 성도들을 잘 배치하면 교회가 놀라게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김앤더슨 기자>

## 이슬람은 기독교를 좋아한다

### 최바울 선교사의 “이슬람에 대한 오해”

17일 필그림교회에서 열린 이슬람 선교세미나에서 최바울 선교사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며 이슬람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설명했다.

먼저 최 선교사는 “쿠란은 이야기 수준의 지식을 기록한 것으로 신학적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슬람을 종교적으로 설명한 책들에 너무 권위를 부여하지 말라”며 “역사, 정치사상, 학문으로 이슬람을 다룬 서적들을 참고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게 이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 선교사는 “카톨릭 등 유사기독교까지 포함하면 전세계에 기독교 인구가 약 30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 중 복음주의 기독교인은 약 7억 정도다. 이슬람은 약 16억 정도니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은 신학적 체계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연대해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도 반서구적 인 성향으로 연대해 있어서 그 영향력이 크다. 그에 비해 기독교는 신학적 엄밀함이 강해 교단 별로 수백개로 나누어져 있고 비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선교사는 “특히, 1400여년간 중국이 이슬람의 동진을 막아왔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부족하다. 9.11사태 이후에 그나마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 선교사가 말한 이슬람에 대한 오해의 일부이다. 한국 크리스천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큰 오해다. 이슬람은 기독교를 좋아한다.

대부분이 이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굉장한 관심을 나타낸다. 평생 포교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보기만 하면 이름이나 종교를 물어본다. 불신자라고 하면 싸이코 취급한다. 이들은 어릴 적 학교에서부터 진화론에 대한 비판만 듣고

자랐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지니스 관계로 만나면 계약도 하지 않는다. 돈 주니까 계약하는 것이다. 불교라고 하면 돼지 취급을 한다. 이슬람 국가에서 ‘돼지’는 가장 심한 욕이다. 유대인들을 욕할 때 사용하곤 한다. 불상에 절하는 것을 자기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나면서 부정하다고 그냥 떠나간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쿠란과 모하메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서 전도 대상으로 여긴다. 기독교인은 일단 형제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말하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생각한다. 그들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역사적 서구 기독교와 석유를 탐내서 들어온 제국주의 기독교를 중요하는



▲ 최바울 선교사

것이다.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구에 속한 베들레헴 같은 경우를 보면 이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시장도 크리스천이고 인구 30%가 크리스천인데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슬람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죽이지만 기독교인과는 결혼할 수 있다. 불신자를 만나면 회개를 촉구하며 알라에게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죽이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의 경우는 아니라고 하면 인정해준다. 다만, 쿠란과 모하메드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죽이는 것이다. <조요한 기자>

## “리폼드신학대학원, 효과적 한국인 목회 돕는 역할 할 것”

### 인터뷰

### RTS 총장 로버트 캐나다 박사

미국 내 7개 캠퍼스와 전 세계 곳곳에서 인센티브코스 목회학 박사과정을 제공해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갖춘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 리폼드신학대학원(이하 RTS) 총장 로버트 캐나다(Dr. Robert Cannada) 박사가 애틀랜타를 방문했다.

5년 전부터 김은수 선교학 박사를 디렉터로 시작된 한국어 목회학 박사과정은 더 나은 목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한인 목회자들에게 유서 깊은 보수적인 개혁주의와 실천적 학문이 결합된 과정을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어 적지 않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조만간 RTS 측은 지리적, 행정적 여건이 우수한 애틀랜타 지역

에 자체 캠퍼스를 마련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은 캐나다 박사와의 일문일답. -RTS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1966년 미시시피 주 잭슨에서 14명의 학생으로 시작해 현재는 70명 교수진과 전 세계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신학대학원으로 성장했다. 미주에는 잭슨, 올랜드, 샬롯, 애틀랜타, 워싱턴DC에 캠퍼스가 있고 온라인 캠퍼스 3개, 국제적으로는 한국, 포르투갈, 브라질에서 RTS의 신학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휴스턴과 인도네시아에서 학교인증을 진행 중이다.

애틀랜타 캠퍼스를 소개하자면 부총장인 사무엘 랄슨 박사와

한국어 과정 디렉터 김은수 박사가 있다.”

-RTS와는 언제부터 인연을 맺었나?

“RTS 안에서 자랐다고 할 정도로 인연이 깊다. RTS 창립멤버이며 25년간 신입이사회를 섬겨온 아버지 로버트 C. 캐나다의 뒤를 이어 1993년부터 샬롯 캠퍼스 총장으로 사역했다. 2001년에 전 총장님이 은퇴하시면서 RTS 전체 2대 총장으로 추대된 것이다.”

-RTS와 한국과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

“한국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하면 ‘Natural Relationship’이다. 한국교회는 19~20세기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고, 아시아의 대표적



▲ 리폼드신학대학원 로버트 캐나다 총장

인 기독교 국가로 전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다. 그 중에서도 80%가 장로교인이다. 개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보고 들을 기회가 있었다.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장로교단에서 파송한 미국 선교사님들이 자주 컨퍼런스에 와서 선교보고를 하고

한국을 소개했다. 그때 어렸지만 한국인들의 헌신과 교회의 놀라운 성장에 대해 늘 기쁘고 흥분되었던 기억이 남아있다. 당시 선교사님 중에는 드와이트 린튼 목사님, 휴 린튼 목사님이 있다.

1990년대 중반, RTS는 총신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목회학 박사과정을 제공했다. 약 10년간 500명가량의 학생들이 거쳐 갔고, 이들은 든든한 동문으로 남아있다.

애틀랜타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에는 다른 어떤 곳보다 한국 학생들이 많고 호스트 하기 쉬운 곳이다.

또한 김은수 교수, 존 여 교수, 피터 리 교수가 RTS 출신으로 직접 가르치고 있어 한국 학생들에게 유리한 교육 환경이다.”

-신학교육에 있어 가장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있다면?

“장로들에 의해 설립된 RTS에서는 철저히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는 목회자와 선교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RTS가 다른 개혁신학 대학교와 차별되는 점을 꼽아 달라.

“우리는 성경무오설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른다. 세상에 많은 신학교들이 시대의 조류에 맞춰 처음에 믿었던 것을 바꾸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지만 RTS에서는 흔들림이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 학생들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현재 한국 학생들 중에는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많다. 연합의 리더십을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어려운 점은 나누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목회자들이 될 것이다.” <박현희 기자, 권나라 기자>

## 총신디지털

###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 특 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3월 5일 세계기도일, 베다니, 미드웨스트, 제일, 복음, 남부교회

세계 교회 여성들 올해는 카메룬 위해



▲ 시카고 지역 교회여성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지난 13일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3월 5일 열릴 세계기도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다.

매년 3월 첫째주 금요일은 전 세계 교회 여성들이 교파와 인종을 초월해 교회 일차와 평화,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세계기도일이다. 1887년 다윈 제임스 여사(미국장로교 국내선교부 의장)가 당시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한 데서 유래된 세계기도일은 올해로 123주년을 맞이하며 180여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날은 한 나라의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을 전세계 여성들이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 그 나라로 전달한다. 한국의 경우는 1922년 만국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기도일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다. 1930년 "예수님만 바라보며", 1963년 "이기는 힘", 1997년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라는 주제로 기도문도 세 번이나 작성한 바 있다. 미주에

서는 한인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1979년부터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 전 미주 70여개 지역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시카고 지역은 1984년부터 시작됐고 시카고를 비롯한 서버브 5개 지역에서 매년 기도회가 열려 왔다. 지난해에는 파푸아뉴기니 여성들이 기도문을 작성한 데 이어 올해는 카메룬 여성들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하라"는 제목의 기도문을 작성했다. 이날 예배에서 나오는 헌금의 대부분은 카메룬 여성들에게 전달되며 일부는 북한 선교, 전세계 기아 어린이, 미국 내 불우 이웃, 시카고 지역의 선교단체 등에게 전달된다. 올해의 기도회는 3월 5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시카고에서는 베다니장로교회(오영택 목사, 4850 N. St. Louis Ave. Chicago, IL 60625, 773-583-6618), 중부에서는 미드웨스트교회(정영건 목사, 1437 W. Oakton St. Park Ridge, IL 60068, 847-292-1254), 북부에서는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목사, 655 E. Hintz Rd. Wheeling, IL 60090, 847-215-1667), 서부 지역에서는 복음장로교회(박선동 목사, 210 S. Plum Grove Rd. Schaumburg, IL 60193, 847-352-0157), 남부지역에서는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요한 목사, 19320 S. Kedzie Ave. Flossmoor, IL)에서 열린다. <김준형 기자>

십자가 이마에 그으며 회개 "재의 수요일"

2월 17일 새벽, 시카고 지역 한 인교회 성도들이 '재'를 통해 예수 수난당하심과 대속하심을 기렸다. 이날은 교회의 최대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을 40일 앞둔 재의 수요일이며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사순절 기간동안에는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수난당하심을 기억하며 특별새벽기도회, 릴레이 금식 등 다양한 행사를 하기도 한다. 그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재의 수요일

서 왔으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해 주는 매개물이기도 하다. 글렌브룩교회는 17일 새벽 6시, 재의 수요일 예배를 드렸다. 백영민 목사는 지난해 종려주일에 맡겨 놓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재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백 목사는 자신이 들고 있는 종려나무와 그 종려나무가 태워져 만들어진 재를 대비시키며 "호산나를 외치던 우리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글렌브룩교회, 참길장로교회 등 재의 수요일 지켜

에 시카고 지역에서는 글렌브룩교회, 참길장로교회 등이 특별 새벽수요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다짐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재의 수요일에 지난해 종려주일에 사용한 종려나무를 태운 재로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그어준다. 이는 구약 시대에 통회하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 혹은 재를 뿌리던 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다. 주님의 수난과 죽임당하심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기에 이 사순절 기간동안 적극적 회개를 통해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뜻이다. 재는 정화를 상징하며 "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하던 죄인의 모습이 되었으며 우리의 그런 죄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 가셨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백 목사는 "죄의 삯은 사망이며 재는 곧 다 태워진 죽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재속으로 들어가 죽은 사람의 입장이 되어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고민하며 이 사순절동안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회개와 절제의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글렌브룩교회의 재의 수요일 예배에는 성인 회중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 회중까지 참석했다. <김준형 기자>

KAFHI 2010 이사회 시카고 본부에서 개최

국제기아대책기구 미주한인본부(KAFHI)의 2010년 정기이사회가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시카고 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가 진행하는 'Good bye, Goodbye Hungry' 1% 나눔 경영 프로젝트에 첫 주자로 참여한 영신건강 최훈석 사장이 1% 기업후원금(1만

보고, 주요필드 및 본부 사역 보고가 이루어졌다. KAFHI는 현재 CDP 사역에 7개국 8개 CDP 센터에서 2천여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원 2만 불을 아프리카 현지인 CDP 훈련센터로 지원했다. 또한 영신건강의 후원으로 조하문 목사 찬양콘서트를 통해 CDP 후원



▲ KAFHI 2010 정기이사회가 시카고 본부에서 개최됐다. 앞줄 두번째가 최훈석 사장, 세번째가 이원상 명예이사장

이원상 목사 명예이사장, 배현찬 목사 신임 이사장에 추대

이사회는 KAFHI 본부를 워싱턴 DC에서 시카고로 옮기고 개최된 첫 이사회였다. 1부 예배는 회장 김형균 목사의 사회, 부이사장 서창권 목사의 기도로 시작됐고 이사장 이원상 목사가 이사야 60장 1절~3절을 본문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KAFHI 사역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말씀을 전했다. 또한 이사회를 통해 국제기아대책기구

불)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다. 또한 LA 세계교회교회 노진준 목사, 월프 갈보리교회 이종관 목사가 아이티 구호헌금을 각각 전달했다. 2부 이사회는 이원상 목사의 사회와 노진준 목사의 기도로 시작해, 2009년 국제기아대책기구의 어린이개발사역(Child Development Program/CDP) 현황 보고, 파송선교사 및 기아봉사단

보고했다. 특별히 전반기 6월엔 이종관 목사가 활동하는 '워싱턴 솔로리스트 앙상블'의 후원공연으로 아프리카 에이즈 말라리아 예방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하반기엔 KAFHI의 아프리카 디렉터인 이종도 선교사의 ACGC 센터 건축 지원을 위해 헬로교회 해외선교사위원회와 3번에 걸쳐 모금행사를 하며 모금한 1만불과 본부

공연을 하고, 기업의 윤리경영을 돕는 나눔 프로젝트, 'Good buy, Goodbye Hungry'를 영신 건강과 함께 NY, NJ, IL, CA, GA지역에서 홍보하고 실시해 11월 중순에서 1월말까지 매출 1%의 후원금(1만 불)을 전달받아 우간다 피츠와 초등학교 폭발사고복구를 지원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국제기아대책기구는 선교구호기구로서 각 교회의 NGO 선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교교육 및 훈련으로 새로운 스텝 및 아프리카 선교사 교육이 6월에 진행되었고, 하나님 나라 DNA란 주제로 기아대책 선교 신학을 가르치는 10주간의 선교세미나가 헬로교회에서 실시됐다. 더불어 국제본부 VMV 훈련이 워싱턴 DC에서 진행되었다고 보고했다. 2010년 새해 사업계획에 따라

면 세계빈곤어린이 후원프로그램인 CDP를 2,10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아이티와 자메이카에 300명 어린이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 신규후원 발굴을 위해 주요도시(LA, NY, NJ, DC, IL, GA, TX 등)에 지회를 설립하고 선교 동역자 및 교회, 후원자를 구할 예정이다. <조요한 기자>

LAX MEDIA (SKC) / SKmax TONER INC

Advertisement for LAX MEDIA (SKC) / SKmax TONER INC. Includes images of CD/DVDs and a printer. Text: - SKC 설교/찬양 COPY용 CD-R, - Custom Screen Printing Service & Packaging Service, - Taiyu Yuden Blank CD-R 판매, - 3UP CD Label 판매, - 각종 case & accessory 판매, - 1Year Warranty & Lifetime Technical Support.

Advertisement for SKMAX TONER. Includes logos for HP, Brother, Canon, Samsung, Epson, Lexmark, Dell. Text: SKMAX TONER는 Powder만을 Refill에 판매하는 문제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입니다. Powder Refill 제품 구매로 프린터 작동 이상이나, 프린팅 용량 부족의 문제점 발생이 없습니다. \* 100% 품질 보증 !!!, 100% Satisfaction Guaranteed!!!! (문제 발생시 100% 교환 및 환불 보증) -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Advertisement for SKMAX Toner. Text: SKMAX Toner로 연락 주세요. 최대 60%까지 비용 절감 해드립니다.

Advertisement for LAX Media, Inc. Text: Hot! Hot! Hot! Special Sale Items! LAX Media, Inc. (SKC 미주 서부 총판) 944E Pico Blvd. #4 Los Angeles CA 90021 TEL. 213-749-0909, 213-718-3189 email : laxmedia@yahoo.com

GLOBAL VISION BANK 글로벌비전뱅크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크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새 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흥 목사

# 미전도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전도 종족을 향한 복음 전파가 세계 교회가 이뤄야 할 과제가 된 후 미전도 종족은 급격히 감소했다. 현재 미전도 종족은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아랍과 중동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선교사적으로 서쪽으로 나아가던 방향과 맞물려 한국과 중국에서 일어난 부흥의

대부분 빈곤국인데 이런 국가에서 비즈니스 성장은 최대의 관건이다. 국가 경제 확립을 위해서는 산업화와 정보화 일어나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이다. MnB는 의료와 교육,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한국에 복음이 전파 되었

난 빈부 격차가 하루 1달러가 없어서 굶은 사람이 10억, 2달러가 없는 사람이 28억 명일 정도라고 심각성을 제기했다.

그는 "일터의 사역자들이 일어나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열방으로 부를 흘려보내야 한다"며 "우리의 기업이 자신의 이윤 추구와 부의 축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킹덤 비즈니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nB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사업가가 선교지에 들어가 회사를 왕성하게 성장시키며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복음화, 제자화 시키고 리더를 배출해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거나 지 회사를 설립해 그곳의 직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있다.

또 선교를 통해 제자 된 이들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순간 무슬림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기 때문에 자립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의



▲ KAFHI 2010 정기이사회가 시카고 본부에서 개최됐다. 앞줄 두번째가 최훈석 사장, 세번째가 이원상 명예이사장

미와 함께 선교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150달러에서 200달러의 지원금은 소규모 빵 공장, 국수 공장, 양계장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나오는 수익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사업이 커진다면 선교 확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비즈니스맨들이 현지 선교사들에게 사업 방법을 전수하고 선교사들이 교회 개척과 함께 각 지역 별로 회사를 개

척하는 방법이다. 한국의 이랜드는 이슬람 위그루에 선교사에게 작은 의류 매장을 개업해 주고 제자를 양성시키고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사례가 있다.

이성욱 선교사는 "목회자와 선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 선교의 영역에는 전후방이 없다"며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동참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크리스

천에게 지금 있는 바로 그곳이 선교지인 것처럼 각 사업장과 기관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성욱 박사는 서울대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현재 CEO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 수원대 교수이자 현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다. 또한 선교단체 인터뷰과 동역하고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 비즈니스를 통한 예배와 복음전파

물결이 미전도 종족에게 흘러가길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무엇일까? 이성욱 박사는 비즈니스를 통한 복음 전파라고 단언했다. 평안장로교회와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열린 MnB(Mission And Business)세미나에서 이성욱 박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러지지 않는 암흑과도 같은 미전도 종족 국가에서 예배가 드러질 수 있는 방법은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듯 경제를 살릴 회사를 바탕으로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성욱 교수는 "아라비아 지역이 오일 달러로 부유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부는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비즈니스 선교사는 시대적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명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세계를 뒤흔든 경제 위기의 원인이 '탐욕'에 있으며,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에 의해 생겨

## 이종성 박사 "하나님의 통치 미치지 않는 곳 없어"

본국 장로회 신학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봉직하는 이종성 박사가 자신의 신학적 결론은 통전적(統全的)신학이라고 정의하고 모든 것을 통합한 온전함에 이르는 신학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가 10년 전부터 발표

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며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직접적 창조나 그런 창조된 것에서 출생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 많은 종교와 우상이 있고 악한 피조물들이 존재하는지 마음에 고민이 있었다"며 "나의 신



▲ 이종성 박사

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신학"이라며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모든 우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신으로 만들었다"며 "사람이건 나무이건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음을 깨닫고 세상을 통전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 박사는 현재 교회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상만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통전적 신학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태양계 밖에 있는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관점이라며, 과학과 신학이 대립적인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 총장 이종성 박사

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통전적 신학이란 간단하게 말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흘러들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준의 신학과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만 통전적 신학은 기존 기독교가 가진 편협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다.

이 박사의 통전적 신학이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

학적 결론은 신학은 전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곳에 권능을 미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준비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불교와 유교, 이슬람 등 타종교에 대해서는 'preparation for salvation' 즉 구원을 향한 준비과정이라고 설명하고 타종교에 대한 배척을 금하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발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원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다원주의 신학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긋고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준비 과정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 받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통전적 신학으로 한국 내 보수 교단에서 다신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이 박사는 "모든 종교를 종합하려는 것

## 북가주연합중보기도, IT 미디어선교 모색

북가주연합중보기도회가 8일 뉴라이프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북가주 연합중보기도회에는 켄안 선교사(Global Media & IT 대표)와 민찬식 목사(살롬교회)가 초청되어 강사로 나섰으며, 켄안 선교사는 '21세기의 미디어 및 IT선교'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켄안 선교사는 미디어 동영상 등을 통해 IT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선교방식과 최근동향을 설명

최근 아이티 참가 현장을 다녀오 고 나서 "아이티 지진현장을 위에서 본 모습은 마치 땅에 파도가 친 것 같이 파헤쳐져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주민들에게 텐트가 필요하다. 주민들은 여진이 계속 있어서 건물 안에서 살지 않고 있다"며 "텐트 하나당 80불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티 현장을 통해 IT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선교방식과 최근동향을 설명

## 켄안 선교사 미디어선교 강의, 민찬식 목사 아이티 선교현장보고

했다. 켄안 선교사는 "할리우드에 7천여명의 기독교 영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최근 한인교회에서 강의했더니, 광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인2세 300여명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영상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민찬식 목사는 최근 아이티 참가 현장을 탐사한, 체험담을 생생하게 전했다. 민 목사는

신매매 위험 속에 방치되었다"며 "쓰레기가 있으면 모두 그냥 아무데나 버린다. 주위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인문화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과 함께 반기독교사상 속에 있었다"며 "이번에 구호단체들과 선교사들이 진출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형진 기자)

# 고객님의 성공이 (IEBEE.COM)의 성공입니다.

> One Stop e-Commerce Solution Provider

SHOPPING MALL + POS SYSTEM

인터넷 비즈니스의 동반자 IEBEE.COM

> 한인 최대, 최고의 시스템 및 인프라! 월 \$9.95

- LA Downtown, 자체 IDC 보유
- 1GB 빠른 인터넷 백본
- 100대 HP, Dell Server 보유
- SAN System 인한 100% 데이터 안전 및 백업 서비스
- 방화벽 및 모든 네트워크를 듀얼로 구성한 튼튼하고 안전한 호스팅, E-mail 서비스

> 인터넷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인터넷 마케팅 담당자, 웹 메이크업 담당자, 제품사진 담당자, SEO(Search Engine Optimization) 전문가들이 고객님의 인터넷 비즈니스 성공을 책임집니다.

이철 칼럼



이철 목사  
가나안교회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검색한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성직자 및 목회자들의 은퇴 후 노후대책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절대진리를 추구하며 일평생을 기름부음 받은 것으로 목회활동을 펼친 분들에게 대한 기사이기도 한 여겨 보았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은퇴후의 노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있기에 시급하게 대안이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눈여겨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후에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염두에 두

고 각종 증권과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음을 쉽게 알게 됩니다. 이런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현직에서 은퇴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투자들에 손대지 않고, 나아가서는 아예 잊어먹는 셈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은퇴 후에 아주 유용하게 쓰겠다는 생각이지요.

사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불경기 혹은 국지적인 불황을 벗어나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동반 몰락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전세계 경제의 허브(Hub)라고 말할 수 있는 뉴욕의 Wall Street는 연이어 터지는 금융권의 파산소식과 연일 마이너스 수익율을 기록하는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은 확실한 것은 세상의 급박한 경제사정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붙잡은 확실한 것은 잠시 동안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다가 다시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확실한 것은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소망

확실한 것을 붙잡으라

어찌 들으면 꽤나 전략적인 방법으로 들리기 까지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성이 높은 투자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의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 이런 발상조차 뒤늦게 들어놓는 메가톤급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세계 경제의 불안정에서 촉발된 금융권과 증권가의 동반 몰락입니다. 과거에도 경제의 불황은 지형적으로 얼마든지 있었기에, 경제의 불안정성 자체만으로는 큰 뉴스거리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식들에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번 파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실망감을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다들 이것만큼 확실하고 안정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믿음과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많은가 봅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무엇을 붙잡고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3:14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열광해야 할 이유이며, 우리에게 가슴 뛰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동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참 제자됨을 그 어느 때 보다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때입니다. 그 제자됨은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가운데 가장 확실한 예수님, 그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십시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김지성 칼럼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동력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동차가 달릴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사람이 움직일 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차게 움직이기 위해서 에

차게, 그리고 활력있게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에너지를 생성시킵니다. 만약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부, 지식, 명예...)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잠을 설쳐가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서로 먼저 얻으려고 난리법석을 떨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다음날 TV 뉴스를 보던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날 대부분의 백화점들은 연중 최대의 바겐세일을 실시합니다. 이 세일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려고 백화점 문이 열릴길 기다리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던 그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백화점문이 열리면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노숙까지 하면서 밤을 하

“예배는 삶의 동력을 극대화 시킵니다”

너지를 충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면 결국 얼마못가 그 움직임이 둔화되거나, 정지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솔린이 스파크에 의해서 폭발하고, 그 압력에 의해서 엔진 피스톤이 힘을 받아야만이 그 자동차가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도 이와같습니다.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받고, 자극을 받음으로써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귀찮다고,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자극받는 것을 등한히 해버리면 에너지가 생생이 안됩니다.

그러면 얼마후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정의 불꽃이 식어져서 그 행동은 결국 중단되고 맙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결과들을 누구나 한두번 이상은 다 경험해 볼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 부재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나중에 다시 열정에 접점을 시도할 때 상당한 노력과 시도가 필요하며, 더더욱 영적인 자극을 받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동기부여와 믿음의 자극을 받도록 만들어 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한사람의 삶을 힘

있게 지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문이 열릴길 기다리는 고객들의 얼굴에서 피곤함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노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테데, 밤새 추위와 싸웠을 것이 분명한테 고객들은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일이라면 집짓 이 정도는 별 것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뉴스 내용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연중 최대 바겐세일에 참여하려고 아우성인데, 진정한 삶의 동력을 제공하는 예배에는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진정한 축복의 통로인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모두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한없이 소중한 것이요,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교회는 예배를 교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로 여기며 예배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예배 위에 축복에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배를 증설하며, 예배를 강화하면서 예배의 가치를 다시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풍성히 가꾸길 원합니다. 너무도 귀한 예배를 위하여 시간과 정성을 더 많이 쏟아 부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민중기 칼럼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우리는 '모든 백조가 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백조를 다 관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표본군을 생각하고 몇 가지의 경험을 통하여 백조가 희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영국 사람이 호주에 가서 백조와 완전히 일치하는 동물이 검은 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백조는 항상 희다는 명제와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발생한 것입니

다. 데이빗 흄(David Hume, 1711-1776)이라는 영국의 사상가는 귀납법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회의주의자(skeptic)답게 구체적인 사실을 관찰하여 일반적인 진리를 얻는 귀납법(induction)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인간이 가진 "이성"(reason)의 한계가 분명하여 진리를 결정하기에는 턱

님의 눈물은 죽음 앞에 선 절망적인 울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물은 오히려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간의 한계상황에 대한 긍휼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요 11:39), "내가 믿으면 하나님

입니다. 예복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사건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상식과 과학의 법칙들을 뛰어넘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성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종종 실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사전에 절망은 없다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상이가 결론 내린 이성의 한계는 사실상 우리의 믿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가 됩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모두 울었으며, 예수님도 함께 인간의 죽음이라는 비참과 한계성 앞에서 눈물지으셨습니다. 장례식에 온 동네 사람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의 영광을 보리라"(40), "나사로야 나오라"(43),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44)는 주님의 명령은 상식과 과학의 정리와 자연법칙과 죽음의 왕노릇과 인간의 불가능성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기적 창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경험을 부스르러리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

죽음은 절망스런 것입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나던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절망은 우리의 사전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즉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미드웨이 렌트카**  
**MIDWAY CAR RENTAL**

최저의가격  
최고의 선택  
최상의 서비스

목사님, 선교사님  
특별한 할인 혜택  
적용해드립니다.

경제적 마일리지 최고의 자동차 / LA공항과 한인타운의 편리한 위치 한인타운내 무료픽업  
각종차량 완비(고급승용차, 스포츠차, 컨버터블 및 기타)  
7~15인승 밴 보유 / 교통사고로 인하여 렌트카 필요하신분

**213.487.4700**  
 Toll Free: 800.499.5779 / Cell: 213.327.6194  
 위치: 2926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월셔와 후버)

한국인 담당  
쥬수아 김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 www.chungycpa.com )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박용덕 칼럼



박용덕 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의 동산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실망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대개는 원대한 꿈을 안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그 도전을 꺾어버리는 주범이 실망이라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받는 공격이 있다면 실망이라는 두 글자의 공격일 것입니다.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새 집을 사려고 했는데 계약이 되지 않았다든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든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배반을 한다든지 하면 실망이란 원수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좌절의 상황으로 몰고 가 정신적인 공황상태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때 실망이라는 두 글자를 과감하게 물리쳐 버

잃어버린 꿈속에서도 꿈을 꾸라

리고 내 인생의 사전에서 지어 버려야 합니다.

세 나무 이야기(The Tale of Three Trees)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

소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릴 적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나무의 이야기로 수많은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나무 이야기 처럼 꿈을

잃고 살 수 있지만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인생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의 방법으로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나무 이야기(The Tale of Three Trees)의 내용은 후반부에 새롭게 전개됩니다. 그것은 실망과 낙심 중에 있었던 세 나무가

지도 못한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떤 일이 와도 그리고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도 낙심이나 실망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방법으로 안 되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할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오히려 옳다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문제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

한방 칼럼



조선훈 원장  
LA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장

고, 진피, 목향, 지각 등의 약재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폐기가 원활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행인(살구씨), 상백피(뽕나무 뿌리껍질), 백과(은행) 등은 기를 내려주고 폐의 사기를 쫓아냄으로써 기침을 멎게 하며, 반하, 길경(도라지)은 담을 제거하는 효능이 뛰어나 가래가

나오는 기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상해수는 관련된 다른 증상들을 살펴 기침의 원인이 되는 장부의 손실을 복구하여야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기침에 좋은 차와 도움이 되는 생활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장  
조선훈 213-487-0150



기침 (2)

바람이 심하고 기온차가 심하여 평소 폐가 약하고 천식이나 기침을 앓고 계시던 환자 분들이 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해수(기침)는 폐계 질환의 주증상으로, 기침할 때 소리만 나는 증상을 해 소리 없이 가래만 나오는 증상을 수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두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해수라 부르는 것입니다. 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호흡으로, 외부의 공기를 체내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기의 정상상태에서의 운동은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과 밖으로 향하는 성질을 갖는데, 이를 선발속강이라고 합니다. 선발속강기능에 문제가 생겨 기가 거꾸로 올라와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기침인 것입니다.

감해수란 우리 몸 바깥에서 감촉되어 생긴 기침을 말하며, '풍한서습조화'라는 여섯 가지 나쁜 기운 즉 육음에 의해 유발 된 것입니다. 내상해수는 '희노우사비공경'이라는 인간의 감정이 오장육부에 관련되

능이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화흡수기능의 중심인 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습한 기운이 과다하게 생기고 그것이 쌓이면 비장에 비생리적인 체액인 담이 생겨 이 담이 폐로 올라가 폐에서 객담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임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외감해수로는 감기와 동반되는 기침이 있으며, 풍수, 한수, 풍한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수는 주로 풍한사에 의해 나타나는데, 날씨의 변화가 급격한 환절기나 가을, 겨울에 해수의 발병이 집중되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풍사는 바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변화무쌍하며, 한사는 말 그대로 차가운 성질이 강하여 외감해수는 발병이 비교적 급하고 병의 과정도 짧으며 춥고 열이 나며 몸이 아픈 증상이 동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수의 치료는 폐의 사기를 제거하고 폐기의 순환을 원활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가래가 동반될 경우 거담(담을 제거)하는 약물을 가감하여 줍니다. 피부의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

어 각각의 장기에 특징적인 기침이 나타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수는 본질적으로 폐장의 기능실조를 표현하지만, 인체는 모든 장부의 기능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당연히 모든 장부의 이상을 함께 진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단방법은 한의학의 전형적인 것으로 해수가 발생하는 데는 오장육부 중에서 특히 폐장?비장?신장의 기

이 되어 기침과 함께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방의 고서에 「폐는 저담의 기, 비는 생담의 원」이라는 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신장의 양적인 기능이 저하되도 비에 담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밥 지을 때 아궁이의 불(신양)이 적당해가 밥이 잘 되며, 아궁이의 불이 약하면(신양하) 밥이 잘 익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신양허가 생기면 비위를 잘 돌볼 수 없어서 담을 만드는 또

한방 칼럼



봉승전 원장  
경희한방병원

흔히 난치병하면 약이나 수술부터 떠올리기 쉬운데, 한방으로 난치병을 다스린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쉽지 않다. 과연 이것이 가

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의학은 양의학적인 면에서는 다소 효과가 늦어 보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방에서는 병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으로 담음(痰飲)이라는 것이 있다. 담음이란 용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것이다. 담음이란 몸에 있는 물이 탁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즉 몸의 맑은 체액이 식생활을 잘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가래처럼 걸쭉해져서 인체의 순환을 방해하여 여러 가지 질환이 된다. 특히 동의보감에서도 '심중팔구는 담병이요, 체내와 체외 온갖 질병에 담으로 생기는

것이 백여 가지가 넘는'다'로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질병이 담음과 관련되어 있다. 때문에 담음만 제재 잘 제거해도 우리 몸의 많은 질병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 담음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담음은 3가지의 특징적인 증상과 2가지의 부가증상이 가지고 있다. 경계, 단기, 현훈이라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경계란 갑자기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괜히 긴장되고 불안한 증상이다. 단기란 한숨이 자주 나오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

이 이유 없이 답답한 증상을 말한다. 현훈이란 어지러움 증상이다. 보통 이중 2가지만 증상이 있어도 담음이 있다고 본다. 또한 2가지 부가증상은 장명 즉 배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이고, 지절통이라 해서 몸살이 자주 오는 경우도 있다. 목에 가래가 걸려있어 뱉어도 잘 나오지 않고 삼켜도 잘 넘

원인일 수 있고 메스꺼움이나 임신 중 입덧도 담음증이 원인이다. 불임도 진찰을 해보면 담음이 원인일 때가 종종 있다. 눈 떨림, 안면경련, 이명 근육의 떨림도 원인이 담음이고 만성적인 목과 어깨의 통증도 그럴 때가 많다.

담음의 증상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시작시지라고해서 그 것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데 있다. 그래서 꼭 귀신에 홀린 듯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듯이 위의 증상 중에 예를 들어서 귀가 심하게 울린다든지, 머

리가 아프면서 속이 미식거리면서 저리고 손발에 쥐가 자주난다든지 할 때 이것이 정도가 심하고 또 자주 규칙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타나는 부위가 중요하다. 담음증상이 심장 부위에서 나타날 때 즉, 심장이 쏘인다든지, 아니면 가슴 중간 부위에서 통증이 온다든지 할 때는 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에 가서도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다른 장부와 달리 심장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장부이므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진행되고 나서야 치료하기를 원한다. 특히 이담음병은 미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의학과 난치병 (담음을 다스린다)

가가지 않는 병을 매핵기라고 하는데 이 증상은 담음증이다. 특징적인 증상은 때때로 있다가 신경을 쓰거나 하면 목에 가래가 붙는다.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담음이 원인이다. 속 쓰림도 담음이

것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데 있다. 그래서 꼭 귀신에 홀린 듯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렇듯이 위의 증상 중에 예를 들어서 귀가 심하게 울린다든지, 머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오픈 1주년 - 고객 감사 대잔치**

한국 청담동의 스타일과 베버리힐스의 기술이 만나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매직 스트레이트 헤어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200 up~~ Regular Price **\$100 up**

컷트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코팅** 또는 **염색**을 해드립니다

\* 1주년 행사기간은 2010년 4월 30일 까지입니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213-381-6485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편리한 주차장**  
160대의 넓은 실내 파킹장  
웨스턴 길에 있는 주차장 입구로 들어 오셔서 2층에 주차하시면 2층에서 바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LA 최고의 위치 - 매꾸리콘도 상가 2층 **월서 + 웨스턴 코너**

# 개신교, 드디어 새로운 종교로 인정받다

## < 프랑스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찾아서 > 종교 개혁 당시 교회의 모습

### 1. 새로운 왕 샤를르 9세(Charles IX 1550-1574)의 초기

재위 17개월만에 후계자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한 프랑수와 2세를 이어, 동생 샤를르 9세가 10세의 어린 나이로 1561년 5월에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 그러자 누가 어린 왕을 대신하여 섭정할 것인지가 초두의 관심사가 된다. 그런데 그 자리는 지금까지 기

철저한 소외를 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남편의 급사(急死)로 대적이었던 디안느의 권력을 꺾을 수는 있었지만, 기즈 가문이라는 북병으로 인해 다시 인고(忍苦)의 시간을 보내기를 1년 6개월. 행운인지 불행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장남 프랑수와 2세의 병사(病死)로 인해 마침내 차남 샤를르9세로 인하여 그토록 원했던 프랑스 최고 권력의 위치에 오르게 된다. 그 이후에도 그녀

세력으로 커져 버린 개신교와도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개신교는 1561년 라 호셀 총회가 열릴 당시 2,000여 개의 교회와 150만명 이상의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기즈 가문의 견제와 동시에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두 진영의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1561년 9월 9일 부터

리고 나바르 왕 앙투완(Antoine de Bourbon)과 왕비 잔느(Jeanne d'Albret) 등 12명이 참석하였다. 가톨릭 측에서는 기즈 공의 동생인 Lorraine 추기경, Tournon 추기경과 40명의 주교들이 참석하였다. 주네브(제네바)에서 온 베즈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으며, 샤를르 9세가 거주하는 생 제르망 영 레이(Saint-Germain-en-Laye) 성에 머물고 있었다. 첫날인 9월 9일은 주네브에서 온 베즈와 로렌 추기경과 신학적 토론을 하게 된다.

베즈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가 될 수 없는 것을 '높은 하늘이 땅과 다르듯, 그리스도의 몸이 빵과 포도주와 동일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회의 며칠 후, 예수회를 대표하는 Diego Lainez가 교황 특사와 함께 회의장에 도착하여 "교황청의 승인 없이는 종교에 관한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므로 회의는 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가톨릭 진영의 반대로 회의는 실패로 끝을 맺지만, 까뜨린은 개신교를 인정하는 관용의 직령을 1562년 1월에 선포하므로, 마침내 개신교가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 인정되며 도시 밖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예배의 자유를 얻게 된다. 개신교의 대표로 참석한 베즈는 이 회의를 통하여 그의 존재를 알리게 된다.

2)뿌와시 종교 회의 장소를 찾아  
가톨릭과 개신교의 화해를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회의인 뿌와시 종교 회의가 열렸던 장소를 찾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주소가 나와 있지 않았다. 우연치 않은 역사책에서 'La Cause'라는 이름과 주소가 기

록되어 있는 책을 발견하고, 이곳이 현재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주일 오후에 이곳을 무작정 방문하였다. 주소지의 건물을 살펴보니 넓은 장소이기는 하지만 웬지 종교 회의가 열렸을 듯한 건물은 아닌 듯 했으나 일단 건물 내부를 살펴 보는데, 건물 안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 건물이 종교 회의가 열렸던 장소인지 확인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북한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있던 시간에 소개되었고, 인사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이유가 종교회의의 장소를 찾기 위함을 알리고 한쪽 테이블로 안내를 받았다.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프랑스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열렬한 환영을 받아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 이유가 이 단체가 한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간식 시간에 동석한 분들에게 'La Cause'가 어떤 단체인지를 물어보게 되었는데, 이곳은 1920년에 창설된 개신교 단체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책 발행 및 카세트 테이프 제작, 천여 명의 한국 입양아를 위한 사역과 종교 서적 출판 및 청년 크리스찬들을 위한 결혼 중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며, 200명의 여러 나라에서 온 자원 봉사자들로 이루어진 단체이었다. 우리가 버린 아이들을 입양하여 사랑과 진심으로 돌봐 줄 뿐 아니라 그들을 버렸던 조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한국 부모 찾기에 앞장 서고 있는 한국과 많은 인연을 맺고 있는 고마운 단체이었다.

봉사들이 3개월에 한번 모임을 갖는데 필자가 방문한 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사실과 필자를 왜 이 테이블로 안내하였는지도 시간이 지나고나서야 알게 되었다. 동석한 그 자리에는 종교 회의가 열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 역사학자 시릴(Cyril) 교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릴 교수는 간략하게 종교 회의가 열렸던 장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시민혁명으로 인해 지금은 건물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개인의 저택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일반인은 절대 방문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함께 원하면 함께 가서 설명해 주겠다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 이 글을 연재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지만 이번처럼 극적인 상황은 처음이었다.

모임이 끝나자 여기 저기 많은 분들이 인사를 걸어왔고, 자신의 가족 가운데 한국 입양아가 있음을 알려주는 분들이 많았다. 프랑스에서 한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처음으로 받아 본 따뜻한 인사이었지만,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이 분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과 처음으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진 날이기도 하였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후, 한국인으로서는 미리 알려주었던 것처럼 이 역사의 장소는 1789년에 일어난 시민 혁명으로 인해 잔해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파괴된 황량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시릴 교수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건물의 흔적들을 일일이 소개해주었고, 그녀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료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 역사적 현장을 한국 교회에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 깔뱅의 주네브 사역의 후계자인 베즈가 개신교를 대표하여 종교회의에 참석하여 묵었던 왕궁 생 제르망 영 레이 성(현재 선사 시대 역사 박물관). 베즈는 이 회의를 통하여 그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한다.

즈 가문의 권력에 밀려 늘상 2인자로 소외되어야 했던 모후 까뜨린 드 메디치(1519-1589)가 마침내 그 자리를 차지하므로 권력의 중심부에서

는 샤를르 9세와 마지막 아들이 3세 까지 숨지는 기막힌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 그녀가 가는 곳은 늘상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는다.

### 1) 까뜨린의 섭정과 뿌와시 종교 회의 (Le colloque de Poissy)

권력을 차지한 까뜨린은 먼저 종교 분쟁으로 인한 더 이상의 정치적 혼란에 빠지기를 원치 않았고, 위그노들의 영부아즈 음모의 실패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더욱 초강력의 권력을 가진 기즈 가문의 견제할 방안을 모색해야만 했다. 가톨릭이었기에 가톨릭의 세력을 등에 업어야만 했고 동시에 기즈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무시할 수 없는

10월 14일까지 파리 근교 뿌와시(Poissy)에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된 '성찬'에 관한 종교 회의를 열어 양 진영의 신학자들을 소집하여 토론을 갖게 한다. 이를 '뿌와시 종교 회의'라고 칭한다.

회의가 열렸던 곳은 뿌와시의 성 루이(Saint-Louis) 수도원의 식당이었다. 회의 시작 전에 왕은 왕국의 평화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에 관용을 통한 질서와 화합을 회복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개신교 측에서는 깔뱅의 후계자 베즈(Theodore de Beze)와 Pierre Martyr와 훗날 개신교 지도자가 되는 콜리니 제독(Gaspard de Coligny) 그

## 성경에 나오는 용어,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 어려운 용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가격 텍스포함 10볼  
전화,팩스,메일로 신청 받습니다.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90010  
TEL : 213 739 0403 / FAX : 213 739 0408

생소한용어 1500개를 비롯해 총 1800여개의 난해용어가 가나다 순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에서 어려운용어발췌  
주요 영어성경을 참조해 한글,한자,영어동시 표기  
용어가 등장하는 성경구절 명시  
수첩크기로 휴대용이 (어려운 용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_\_\_\_\_ 권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싸인) \_\_\_\_\_

# 기독일보와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선교회

<b>감사한인교회</b> 담임 김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228-9640 / FAX: 714-221-4636 <a href="http://thanksgivingchurch.com">thanksgivingchurch.com</a>	<b>소중사람들(구,거리선교회)</b> 대표 김수철 목사 매일 오전 7시 (더튼타운 47) Cocker st.전양과 나눔예배 주일 1부 오전 7시 거리예배 / 2부 오전 9시 30분 성탄예배 한인교회/선교회 운영, 후드윙크 운영, 한국노숙자 무료급식 및 노숙자전용교회, 센터운영, 미얀마 무료급식 및 교차리 운영, 중국, 멕시코, 북한 무료급식 지원사업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www.ppeople.org Tel: 213-385-4515 Fax: 213-385-5474 E-mail: streeta@yahoo.com	<b>구세군나성교회</b> 담임-김옥균 사관 주일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시 20분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시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el: 213-480-0714 www.salvationarmy.com	<b>세계성경장로교회</b> 담임: 강신근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97, 2298(Fax) www.wbpcusa.com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 진유철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금요예배: 저녁 7:30 / 저녁 7:30 176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 Fax: 323-913-4494 <a href="mailto:lafgcusa@yahoo.com">lafgcusa@yahoo.com</a>	<b>중앙선교회</b> 임동선 원로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시 0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0시 15분 주일 4부예배: 오후 12시 15분 주일 5부예배: 오후 2시 30분 FAMILY CHAPEL E.M Sunday: 12:00 PM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323-466-1234 www.ome.org	<b>남가주명성교회</b> 담임 정해진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 / 새벽예배: 오후 1:00 / (월-토) 주일 오전 5: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11 S. Mariposa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3-9182 / FAX: 213-251-9182 <a href="http://lamsch.com">lamsch.com</a>	<b>드림교회</b> 담임 이성현 목사 한어 KM예배: 1부 오전 8시 / 2부 오전 11시 영어 EM예배: 1부 오전 11시 / 2부 오후 1:30 영아 EM예배: 오후 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0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el: 626-793-0880/0220 Fax: 626-793-8412 <a href="http://dreamumc.com">dreamumc.com</a>
<b>나성한인감리교회</b> 담임 남강식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수요일예배: 7시 2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오전 10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30분 유익 아카데미 주일 4부(침례) 오후 1시 30분 오후 1시 30분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el: 213-365-6191 / FAX 213-365-6291 <a href="mailto:lakmc.onmam.com">lakmc.onmam.com</a>	<b>오렌지새영교회</b> 담임 임병철 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7:00(토) 설교: 오전 7:00(토) 315 S. Knott Ave., #206 Anaheim, CA 92804 Tel: 714-900-1008 comingj@gmail.com	<b>SL 임마누엘선교회</b>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 (매일): 저녁 7:00 SOLOMON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 (Ph.D.)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4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380-7755	<b>삼성장로교회</b> 담임 신원규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늘푸른예배 주일 2부예배: 오전 9:40 아름다운 예배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오직주님예배 주일 4부예배: 오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el: 714-524-2029 Fax: 714-524-8844 <a href="http://www.sstpc.net">www.sstpc.net</a>
<b>새창종교회</b> 담임 최화랑 목사 주일예배 1부/2부 오전 9시 / 11시 찬양경배 오후 1:30 새벽기도 새벽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325-0501 / FAX 310-325-4282	<b>세계선교회</b> 담임 정우성 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8시 / 2부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종교동부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영아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한어 청년부: 금요일 오후 7시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www.worldmissi onchurch.com T) 213-388-1927 / 213-388-2105 F) 213-383-3818	<b>아름다운교회</b> 담임 고승태 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3부 (EM):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시(토)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el: 626-810-3455 / Fax: 626-964-5559 <a href="http://beautifulchurch.org">beautifulchurch.org</a>	<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 엄규서 목사 주일예배: 1부 8시30분 / 2부(영아예배) 9시45분 3부(종교동부) 11시30분 / 4부(찬양예배) 2시 주일학교: 11시30분 토요일침례예배 6시 새벽기도회: 6시 수요일예배: 7시30분 금요일기도회: 8시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2-5658
<b>함께하는교회</b> 담임 최성철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 (영아)예배: 오전 9시 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 (화-금) 오전 5시 30분, (토)오전 6시 14555 Valley View Ave, Suite C,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714-236-0256	<b>은혜한인교회</b> 담임 한기홍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0시 주일 3부 예배: 오전 12시 주일 4 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1, 714, 446, 6200 Fax: 1, 714, 446, 6207 <a href="http://graceml.com">graceml.com</a>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 신승훈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주일예배 3부 오후 12:40 수요/금요예배(A)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a href="http://www.gccj.org">www.gccj.org</a>	<b>영생장로교회</b> 담임 김세철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 오전 11시30분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교회 : (323) 732-7356 목사관 : (818)993-3574
<b>코너스톤교회</b> 담임 이종용 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주일 대 예배 오전 11시 수요 찬양 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24426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630-4040 FAX 310-630-8400 <a href="http://comecornerstone.com">comecornerstone.com</a>	<b>축복교회</b> 담임 김인경 목사 주일 1부 예배: 9:30(영아) / 2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Cell Church (금) 오후 8시 청소년 예배 (토) 오후 7:30 Leadership Training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el: 909-598-7731 Fax 909-594-5955 <a href="http://Walnutblessing.com">Walnutblessing.com</a>	<b>하나로교회</b> 담임 박문환 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4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0 주일 3부 예배 오후 2:00 종교동부 예배 오후 8시 찬양기도회 (월-토) 오전 5: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233 English Rd., Chino Hills, CA 91709 Tel: 909-464-9210 / FAX 909-548-4536 <a href="http://hanarochurch.net">hanarochurch.net</a>	<b>헤브론교회</b> 담임 강진웅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45 (새 세대 예배) 교육부 예배: 오전 11시 4층 AWANA 주일 오후 1시 4층 체육관 수요 워십 콘서트: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5-8677, 323-735-8888 FAX 323-735-9696
<b>나성열린문교회</b> 담임 박현성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 주일 영아예배 주일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 찬양예배 오후 3: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시 30분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b>주님찬양교회</b> 담임: 장춘근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30분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금요예배: 오후 8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el: 310-940-1646 / 714-397-2875	<b>새생명장로교회</b> 담임 정철 목사 주일 1부 EM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EM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주일): 오전 6: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el: 949-458-9191 Fax: 949-459-9158 / www.newlifekpc.org	<b>새생명오아시스교회</b> 담임 김일형 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EM 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3-2939 NEWLIFEORISSIS.ORG
<b>나성소망교회</b> 담임 김재물 목사 주일 기도회: 오전 9:50분 주일 예배: 오전 11시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토요일(Youth) 종교동부 모임: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 550-7377	<b>Coffee Break Small Groups</b> 한인지역대표 백은실 집사 www.coffeebreakkorea.org coffeebreakgrace@hotmail.com 주소: 8208 Peppertree Ln., Cypress, CA 90630 Tel 714-995-4461 Fax 714-974-3017	<b>심 있는 교회</b>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금요 성경공부: 오후 8시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6시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293-1257 / ShimChurch.org	<b>대흥장로교회</b> 담임: 권영국 목사 주일 1부 오전 8:30 분 당, 2부 영아예배 오전 11:00 EM 예배당, 3부예배 오전 11:00 분 당 종교동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당 유아유치부 주일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실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F (310) 719-2229
<b>얼바인침례교회</b> 담임:한중수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시 45분 주일 2부예배: 오전 9시 45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45분 주일 4부예배: 영아예배: 오후 1시 35분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분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b>파사데나 장로교회</b> 담임 성현경 목사 주일예배 영아예배: 주일 오전 10시 스페인예배: 주일 오전 10시 한국어예배: (1)부주일 오전 9시 (2)부주일 오전 12시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분 토요일 오전 9:00분 585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1 Tel 626-795-6252 Fax 626-584-8544 <a href="http://www.wepcc.net">www.wepcc.net</a>	<b>그레이스마운트교회</b> 담임 김기환 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시 수요일 예배: 오후 7시 새벽 예배: 오전 6시 3550 W, 6th St, LA, CA 90020 Tel: 213-448-9999	<b>충현선교회</b> 담임 민종기 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8:00 주일 예배 2부: 오전 9: 30 (영린예배) 주일 예배 3부: 오전 11:30 수요일영아예배: 오후 7:30 (수요일) 46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el: 818-549-9191 / www.choonghyun.org
<b>갈릴리선교회</b> 담임: 한천영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11:00 토요일(합세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el: 323-735-6412, www.gmccchurhc.com	<b>남가주동신교회</b> 담임 손병렬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10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성탄): 오후 1: 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el: 714-680-9556 Fax: 714-680-6418 <a href="http://dongshinchurch.com">dongshinchurch.com</a>	<b>한인어린이회</b> (어린이 선교회) 비영리 법인 주연방정부 IRS 회장: 테레사임 목사 문의: 213-380-1112	<b>예수마을교회</b> 담임 정인호 목사 주일 예배: 오전 9:30 / 오전 11시 주일 학교: 오전 11시 / 오후 1시 종교동부: 오전 11시 / 오후 1시 금요종교기도: 오후 1시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el: 213-739-0515
<b>미주양곡교회</b> 담임 지용덕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시 새벽예배(매일): 새벽 5:30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Fax: 213-380-9378	<b>주님세움교회</b> 담임 박성규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시 주일 2부예배: 오전 10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20 교회분당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a href="http://www.junimchurch.com">www.junimchurch.com</a>	<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 지윤성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시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오후 예배: 오후 2시 영 아 예배: 오후 2시 새벽 예배: 오전 5:30 / 금요찬양: 오후 8시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 www.laapc.org	<b>임마누엘헬로십교회</b> 담임 안충기 목사 주일학교(Joyland): 오전 11시 종교동부(Dream Team): 오후 1:15 청년부(Fleet Team): 오후 1:15 청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944-8082
<b>인랜드교회</b> 담임 최병수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el: 909-622-2324 Fax: 909-622-1480 <a href="http://www.inlandchurch.org">www.inlandchurch.org</a>	<b>남가주리더미교회</b> 담임:김요섭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분당) 주일 2부예배: 오후 1시(분당)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전 11시 (매교교육관) 주일 학교/종교동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새벽예배 (화-토) 오전 5시(분당) 교회: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제2교육관: 3440 Wilshire Blvd, Suite 276, LA CA 90010 Tel: 213-215-8523 / www.scdm.org	<b>중앙아시아선교회</b> 대표 정기철 장로 CENTRAL ASIA MISSION 1878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65 Tel: 626-533-5300 Fax: 626-912-7453	<b>세계소망교회</b> 담임: 오세훈 목사 주일 1부: 오전 8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주일 2부: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찬양: 오후 1시 30분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교회: (213) 745-9191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정육점

##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Prime 과 Choice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갈비 전문점/교회 단체 특별가격

프라이 생등심	프라이 꽃살	오리고기
프라이 갈비살	초이스 찜갈비	흑염소
샤브 샤브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돈까스/비프까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11가점 (1호점) Tel 323.733.4677**

## 혜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직 · 신용 · 믿음으로 모시겠습니다

**213.453.5900**

김기형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 이사는 한강(漢江) 이삿짐에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한국인이 직접 포장하고  
정리정돈까지 담당하고 숙련된 경험자 이제 여러분의  
KEY를 한강에 맡기주세요! 한강은 양심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국식 포장 및 정리정돈까지”

LA 213.386.2424 O.C 949.784.2424

Local(시내) 이사 전문 • 무료견적 서비스 • 야간이사 OK

##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온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금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온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

JAMES JHUNG (제임스 정)  
EXECUTIVE DIRECTOR

Tel : 213.725.7217 ..... 세일즈 하실분 모집

##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 혜밀리 만물상

주 7일 OPEN | 가정용, 사무용, 모든 가전제품  
좋은 가격에 사고 팝니다.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수리 교환 및 판매, 운반 설치

전화문의  
환영 **T.213-247-9555**

## SK smart-naephone

- SK한국전화기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 분당 2¢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 213-435-0608

## 반값으로 할수있다!

- 차바디수리 50% 절약 -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213-265-8485, 213-388-4464  
Main Office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저체사육,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전미주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국적 언어 서비스 포함\*  
타주 이사, 시내 이사, 귀국 이사

무엇보다도  
**1-866-545-2424**  
**323.766.1111**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e-mail : skook@hyundaemoving.com

##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한국 ↔ 미국

당일 동시 (고액 전문)  
소액도 가능합니다

**TEL. 213-388-4989**

##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PERMIT DRAWING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컴퓨터 개인교습도 가능합니다.

Subject :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Photoshop, Illustrator, Webdesign course

**Tel. 213-284-4111**

## K.KOH 루핑

Li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윈도우 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전화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물 맞은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 나라 이주 공사

정직, 성실,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 영주권 갱신 및 분실
- 재입국 비자
- 소액재판 신청, 번역/통역
- 메디칼 신청, SS/GR 신청
- 자녀 양육비 신청
- 속성 결혼/이혼 수속
- 각종 서류 작성 대행

**(213) 388-9282 (213) 909-1103**

냉난방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망브랜드 냉난방기 전문 취급업체 / 미주 전지역 LG, 현대, 위아, 삼성 등만

##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 에어컨 1위

에어컨 수리 & 수평선정하에 앞섰습니다. LCF 863510

323.525.0011 / 213.200.5388 / amazingaircon.com

#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미주성결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TEL : 323-643-0301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3월 1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956-2900  
2221 W. Colchester Dr,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전액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공동 학위 수여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2009년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추천**  
아이토크비비  
캐나다 론칭

**행사기간**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로컬/장거리 국제전화까지 무제한

**이젠,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한인들은 아이토크비비를 씁니다!**  
[가정용 스마트폰]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TAX 포함] /월 **\$24.99**

집전화 1대+핸드폰 2대로 한국포함 27개국에 자유롭게 국제전화!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관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아이토크글로벌**

- 본인의 휴대전화를 아이토크비비 여카운트에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한국 포함 27개국에 국제전화 이용가능
- 인터넷 전용선이나 IP BOC가 없이도 접속번호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 가능
- 아이토크비비 가정용 전화 서비스와 동일한 안정적인 통화 품질

지금 가입하시면, **아이토크글로벌 매월 500분 무료!**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30일 환불 보장

**NO** 계약기간

아이토크비비를 원하는 기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마이 코리아 넘버**

- 복잡한 접속번호 No 국가번호 No
-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간편하게 고객님께 전화
- 한국내 요금으로 국제전화에 대한 부담 Zero
- Caller ID를 통해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번호 확인 가능
- 한국의 가족 및 친구를 위한 최고의 선물
- 한국과 교류가 많은 비즈니스맨에게 적합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800 872 2902

1-800-875-8318 고객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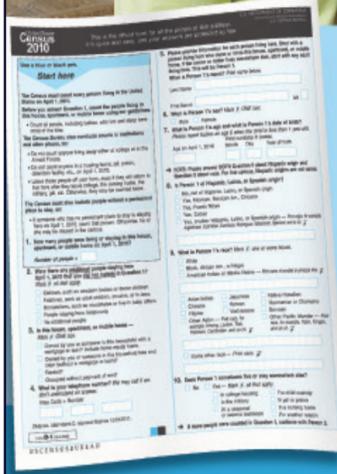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

iTalkBB와 함께 성장하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213-784-1133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커뮤니티를 돕는 길- 우리 모두 빠짐없이!



인구조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10년 인구조사 양식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커뮤니티의 학교 개선, 직업훈련 증가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참여합니다. 10가지 간단한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후 양식을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내일의 커뮤니티를 키울 힘이 있습니다.

- 해마다 분배되는 정부지원금 4,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 커뮤니티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법적으로 누구나 참여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해드립니다.
- 3월에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이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양식에 답변하신 후에는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한국어 지원을 원하시면 2010census.gov를 방문하십시오.

인구조사 양식을 보내주십시오.

United States<sup>TM</sup>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